

『신찬자경』의 이체자 유형 분류*

— 간략화와 증번화를 중심으로

金玲敬**

【목 차】

1. 서론
2. 『新撰字鏡』 이체자 유형
 - 1) 簡略化
 - 2) 增繁化
3. 결론

【초록】

『신찬자경』은 『일체경음의』·『옥편』·『절운』·『정명요록』·『간록자서』 등 중국에서 전래된 한문 문헌을 저본으로 하여 편찬된 일본의 辭書인데, 다양한 이체자와 속자 자료가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어서 자양학적으로 가치가 높다. 『신찬자경』의 이체자는 일반적인 이체자와 비슷한 형성원인을 보이므로, 그 방법론을 적용해 연구할 수 있다. 한자의 이체자는 크게 글자 구성 원리의 변화, 簡略化, 增繁化, 交替, 異化, 同化, 類化, 記號化, 訛混, 同音借用, 構件轉位, 畱文 등의 요인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형성되는데, 필자는 상호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이체자 유형들끼리 모아서 『신찬자경』 이체자와 일반 이체자의 공통성과 차별성을 탐구하려 한다. 그 첫 번째 단계로 본 논문에서는 간략화와 증번화 유형 이체자를 정리하고 분석하였으며, 『신찬자경』 이체자의 보편성과 고유성도 함께 고찰하였다.

【키워드】 『신찬자경』, 이체자, 이체자 유형, 속자, 간략화, 증번화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4S1A5B5A02016920)

** 江西师范高等专科学校教授 (jadeling72@naver.com)

1. 서론

『신찬자경』¹⁾은 901년 일본 헤이안 시대 쇼타이 연간에 편찬된 일본 초기 辭書 중 하나이다. 원래 한반도를 통해서 중국의 선진문물을 전해 받았던 일본은 견수사와 견당사 등을 파견하여 점차 직접 중국과 교류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도 수많은 학자와 승려가 중국을 유학하기 시작하였고, 직접 중국의 문헌을 수집하고 고국으로 가지고 돌아와 중국의 한문 문헌을 일본에 전래하였다. 『자경』의 저자 쇼주(昌住)도 일본으로 들어온 한문 문헌을 저본 삼아 이 辭書를 편찬하게 되었는데, 현종의 『일체경음의』·『간록자서』·『정명요록』·『원본옥편』·『절운』·『본초경』·『소학편』·『문선』 등이 활용된 것으로 연구되었다.

쇼주의 생몰연대와 이 책을 지은 시기를 통해 보면 이 참고 문헌들은 모두 필사본으로 추정되며 돈황 속문헌과의 연관이 아주 깊다.²⁾ 특히 『일체경음의』와 『절운』·『소학편』·『본초경』·『간록자서』 등은 직접적인 수록자 내원이며, 수집한 글자들을 배열하고 정리하면서 글자간의 관계와 正俗을 판단할 때에는 『정명요록』이나 『간록자서』 등과 같은 자양서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자경』에는 어쩔 수 없이 속자와 규범자가 혼재할 수밖에 없으며, “자양서”류를 참고하여 최대한 규범 자형을 쓰고 수록하고자 하였으나 습관적으로 속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도 많다. 그러나 전체적인 자형 상 특성을 살펴보면 속자보다는 정규적인 자형과 자양서나 다른 자서에서 공인된 이체자들이 주로 표제자를 이루고, 표제자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석문에 속자의 전통을 이은 자형이 다소 출현한다. 종합하면 『자경』에는 속자와 당시의 규범 자형, 본자와 이체자, 일본 고유의 이체자와 통용자들이 자양서에 비견될 만큼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으므로,³⁾ 한자 이체자 연구의 중요한 영역의 하나로 인식되어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실상 이 방면의 연구는 아직 많이 미흡하다. 이 책의 본국인 일본에서는 문헌학의 각도에서 주로 연구가 이루어졌고, 북해도 대학의 이케다 교수를 중심으로 교감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자형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를 한 것은 아니었다. 중국의 張磊 박사가 이 책의 자형 연구에 가장 선구적이기는 하지만 이 역시 難字나 僻字 등을 중심으로 한 개별 글자에 대한 考釋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자경』의 자형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와 연구—즉 문자의 유형과 이체자의 분류 등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필자 역시 2011년부터 이 책을 연구했지만, 이 책에 수록된 한자의 문자 유형과 이체자의 형성원인 및 원리 분석·분류 등 『자경』 문자의 계통성에 대한 연구는 이 논문이 시작점일 뿐이다.⁴⁾

1) 이하 『자경』으로 약칭한다.

2) 金玲敬, 「新撰字鏡小考」, 『中國語文學論集』, 74호, 2012. pp.71-72. 이 논문에는 이밖에도 『자경』의 편찬과정, 구성, 체제, 부수체계, 학술 가치 등에 대해 논술하고 있으므로 『자경』의 서지학적 정보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참고할만하다.

3) 『자경』의 이체자 정리 및 해설 양상에 대해서는 필자의 줄고 「『新撰字鏡』 註釋 體例 研究 — 한자字形屬性情報를 중심으로」(『중국어학』, 45집, 2013)를 참고하기 바란다.

4) 필자는 줄고 「『新撰字鏡』 이체자 유형 연구 — 火부와 灬部를 중심으로」(『中國文學研究』, 제48집, 2012)에서 『자경』 火부와 灬부에 소속된 이체자로 간략하나마 유형 분석을 한 적이 있다. 본 논문은 이

필자의 『자경』 자형 연구는 이체자의 형성원인 규명과 분류에서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수년에 걸친 『자경』의 디지털화와 교감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자경』의 자형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이체자의 발전 규율과 궤를 같이하고 부분적으로 고유한 자형 상의 특징을 가진다는 것이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결론일지도 모른다. 이체자나 속자가 어느 날 한순간, 어느 한 개인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한자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이를 사용하는 일정 범위의 사람에 의해서 공인되고 향유되는 것이니, 편찬된 나라가 다르다고 한자 자형에 갑자기 거대한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자경』의 이체자를 개별 연구해야 하는 이유는 공통성이라는 큰 물결에 휩쓸려 무시해 버리기에겐 너무 아까운 고유성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자경』의 자형이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인 이체자와 같은 형성원인에 의해 나타났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기존의 이체자 연구 방법론을 응용하되, 『자경』의 고유한 이체자 형성 규율도 아우를 방법을 찾으려 시도하였다.⁵⁾ 이에 따라 毛遠明의 『漢魏六朝碑刻異體字研究』와 張涌泉의 『漢語俗字研究』의 이체자(혹은 속자) 형성원인 분석과 유형 분류기준 등을 통해 『자경』의 “이체자 형성원인 및 유형 분류”기준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아래와 같다.

『자경』 이체자 형성원인과 유형 분류

| 대분류 | 세부유형 분류 |
|-----------|--|
| 고문자의 이체자화 | 갑골문, 금문, 주문, 고문 |
| 조자원리변화 | 상형의 형성자화, 회의의 형성자화, 형성의 회의자화 |
| 간략화 | 1. 필획 생략 및 간략화 수획 생략, 횡획 생략, 점획 생략, 별획 생략, 날획 생략, 필획 공유, 연필 2. 構件 생략 및 간략화 |

를 바탕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이체자 유형의 분류기준도 다시 정비하여 이루어졌음을 밝힌다.

- 5) 본 논문의 研究思路를 잠깐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경』 이체자의 보편성과 고유성을 고찰할 연구방법을 마련한다. 한자의 이체자는 크게 조자 원리의 변화, 簡略化, 增繁化, 交替, 異化, 同化, 類化, 記號化, 訛混, 同音借用, 構件轉位, 合文 등의 요인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형성된다. 『자경』 역시 이러한 큰 범위의 형성원인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보편성을 가진다. 그러나 때로는 일본이라는 지역적인 고유성을 드러내는 독특한 이체자를 형성하기도 하므로 이를 귀납해 낸 이체자의 분류기준과 형성원인의 정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이체자의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여 이 자형들이 가지는 보편성과 고유성을 설명할 연구방법을 마련해야 했고, 그것이 바로 본문에서 제시한 “이체자 형성원인과 유형 분류”기준이다.

둘째, 『자경』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이체자를 발굴하여 일반적인 이체자와의 비교를 통해 그 고유성을 확인하고 형성원인을 설명한다. 이러한 독특한 이체자야말로 『자경』 이체자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요소이므로 이러한 자형의 발굴과 고석에 집중한다.

셋째, 이체자 형성의 13가지 요인 - 즉, 고문자의 이체자화, 조자 원리의 변화, 간략화, 증번화, 교체, 異化, 同化, 類化, 記號化, 訛混, 同音借用, 構件轉位, 合文 등을 한자 자형 변천에서 이러한 요인들이 맡은 역할을 중심으로 類聚한 후 상세히 논증한다. 예컨대, ① 고문자의 서체 변화로 인한 이체자, ② 조자 원리 변화로 나타난 이체자, ③ 이체자 형성의 본원적 형성원인-간략화와 증번화, ④ 자형 변이의 극대화-이화·동화·와혼, ⑤ 자형 변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의 극복 과정-교체, ⑥ 한자의 기호성 강화-기호화·동음차용, ⑦ 새로운 자형의 창조-구건전위·합문 등으로 묶어 논증할 것이다.

| | |
|-----|---|
| | <p>동일한 構件 생략,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構件 생략, 構件의 형태를 간략히 줄임</p> <p>3. 의부 생략 및 간략화 의부 전체 생략, 의부 국부 생략, 의부 構件 간략화</p> <p>4. 성부 생략 및 간략화 성부 전체 생략, 성부 국부 생략 및 간략화, 의부 성부 모두 국부 생략 및 간략화</p> <p>5. 초서 자형 해서화</p> |
| 증변화 | <p>1. 필획증가 수획증가, 횡획증가, 점획증가, 별획증가</p> <p>2. 構件증가 문자성 構件 증가, 비문자성 構件 증가</p> <p>3. 의부증가 표형자에 불필요한 의부 추가, 형성자에 불필요한 의부를 부연하여 의중 의부 구조를 만드는 경우, 인신의 등 새로운 자의를 반영하기 위해 의부를 더함, 형성자의 의부의 기능이 약화되어 다시 의부 추가</p> <p>4. 성부증가 자형의 변화로 원래의 성부가 음가를 잘 나타내지 못할 때 음가를 알기 어려울 때</p> |
| 교체 | <p>1. 회의자 構件 교체 2. 형성자 의부 교체 의미가 상통하는 기타 의부로 교체, 자의의 변화에 따른 교체, 의부의 의미를 더 잘 드러내기 위한 교체</p> <p>3. 형성자 성부 교체 음가를 잘 드러내기 위한 교체, 한자음의 변화에 따른 교체, 동음자로 성부 교체, 의부를 더하여 원 자형 전체를 성부로 삼음</p> <p>4. 의부 성부 동시 교체</p> |
| 이화 | <p>1. 필획의 이화 곡필-직필, 수획-횡획, 점-횡획, 횡획-점, 별-수획, 수획-수절, 수절-수획, 절-횡획, 단절-연결, 연결-단절, 절단-관통, 관통-절단, 획의 방향과 배치의 변화로 인한 변이</p> <p>2. 構件의 변이 서로 형태가 비슷하여 간략화·변형·전위·와변·대체 등 변이 발생, 構件 해체와 재조합으로 인한 변이, 構件 속와자화로 인한 변이</p> <p>3. 의부의 변이 의부 속와자화로 인한 변이, 의부 해체 재조합으로 인한 변이, 의부 위치의 상이에 따른 변이</p> <p>4. 성부의 변이 성부 국부의 변이, 성부 전체의 변이</p> <p>5. 자형 전체의 변이</p> |
| 동화 | <p>1. 필획의 동화 장획과 단획의 차별이 없어지고 동화됨, 곡선과 직선의 구별이 없어지고 동화됨, 절필과 직필의 구별이 없어지고 동화됨, 필획의 증감으로 인해 서로 동화됨</p> <p>2. 構件의 동화 서로 비슷한 형태의 構件이 더욱 동화됨, 構件의 속자화로 동화됨</p> |

| | |
|------|---|
| | 3. 의부의 형태가 비슷하여 서로 동화함 4. 성부의 형태가 비슷하여 동화됨 |
| 유화 | 1. 뒷 글자의 영향으로 편방 추가 2. 글자 내 의부의 영향으로 인한 유화 3. 글자 내 성부의 영향으로 인한 유화 4. 글자 내 다른 構件의 영향으로 인한 유화 |
| 기호화 | マ、ㄣ、ㄱ、ㄴ、ㄷ、二、口、丨、乂、一、又、云、米、ム、卉、舌 등의 기호로 構件 대체 |
| 와혼 | 1. 자형전체의 와혼 2. 構件 와혼 회의자 構件 와혼, 형성자 構件 와혼(의부 국부 와혼, 성부 국부 와혼, 성부 의부 모두 와혼) 3. 편방 와혼 의부 와혼, 성부 와혼 |
| 동음차용 | 1. 자형이 간략한 동음자나 유음자를 차용 2. 동음자를 차용한 후 다시 개조 |
| 構件전위 | 상하전위, 좌우전위, 상하 구조의 좌우 구조 전위, 좌우 구조의 상하 구조 전위, 편향 구조의 좌우 구조 전위, 좌우 구조의 편향 구조 전위, 상하 구조의 편향 구조 전위, 좌우 구조의 상하 구조 전위, 構件 전위 후 재조합, 구조 전위와 構件 조정 동시 출현, 構件 생략으로 인한 구조 전위 |
| 합문 | 인접한 글자를 한 글자처럼 이어씀 |

위의 표에서 보듯이 『자경』의 이체자는 13가지의 큰 유형에서 다시 여러 세부 유형으로 나뉜다. 즉 큰 이체자 형성원인 안에 필획, 構件, 편방 세 영역에서 여러 가지 자형 변천의 과정을 거쳐 다양한 이체자가 형성된다. 본 논문은 그중에서 우선 간략화와 증번화라는 두 상반되지만 이체자 형성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형성된 이체자들을 각각의 세부적인 이체자 형성원인에 따라 정리하고 분석하여 그 이체자들의 보편성과 고유성을 찾아내려 한다.

2. 본론

1) 簡略化

한자의 자형은 고문자 시기부터 줄곧 “서사의 편리와 정확한 形音義 전달”이라는 두 가지 상충된 목적을 충족해 가며 변증법적인 발전을 해왔다. 그러나 소전 서체의 제정 및 보급, 예변의 발생과 그 뒤를 이은 한자의 해서화 등 모든 자형의 변천 단계에서 보이듯이 자형 변화의 가장 주요한 흐름은 복잡한 자형에서 간략한 자형으로 변해가는 것이다. 예변 이후의 한자는 고문자와는 달리 여러 개의 筆劃과 構件이 어우러지므로 자형이든 필사법이든 고문자와는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필획과 構件 두 영역에서 다양한 생략과 간략화 양상

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체자가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간략화 이체자 형성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고문자에서 今文字로의 자형 변천에 따른 글자 형태와 필사법의 변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예변을 거쳐 해서 단계에 들어와서는 더욱 서사에 편리한 자형을 추구하게 되었다.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모두 필사에 의존해야 했고, 필사의 편의는 무엇보다 중요한 자형 변천의 동력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형이 복잡하고 필사가 쉽지 않은 한자를 좀 더 간략하고 쓰기 쉽게 만들려는 노력이 간략화 이체자의 형성을 촉진하였다.

(1) 필획 생략 및 간략화

한자의 필획은 붓을 움직여 만들어내는 가장 원초적인 요소로 글자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이다. 고문자의 마지막 단계 자형인 소전은 필획 자체가 곡선이 많았고, 획의 방향을 바꿀 때도 끊지 않고 筆毛의 轉折만을 통해 한 붓으로 그려내었지만 예변을 거치고 해서화 되면서 획을 짧게 나누고 끊어 쓰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래는 이어졌던 획이 단절되고, 운필의 편의성과 美觀을 위해 붓을 다루는 방법, 즉 筆法을 달리하여 다양한 형태의 필획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완전히 뿌리 내린 해서는 끊임없이 서사의 편의성을 중시하며 발전해 나갔고, 간략화는 한자 자형 변천의 주류 경향을 이루게 되었다. 그 결과 필획의 생략을 통해 다양한 이체자가 양산되었는데, 아래는 그 양상이 『자경』 이체자에 반영된 모습이다.

① 豎劃(丨)의 생략

일부 이체자는 본자에서 수획을 생략하여 나타난다. 𠂔⁶⁾은 𠂔의 이체자이다. 의부 目과 성부 生으로 구성되었는데, 生의 수획이 생략되어 나타났다. 𠂔⁷⁾는 𠂔의 이체자이다. 曹은 棘과 曰로 이루어진 글자로 𠂔로 隸定되었고, 후에 棘가 하나의 글자처럼 연결되면서 𠂔(「桐柏墓碑」)⁸⁾의 과도자형을 거쳐 曹로 정착되었는데, 중복된 수획 중 하나를 생략하여 𠂔가 되었고, 이에 따라 𠂔라는 이체자가 형성되었다.

② 橫劃(一)의 생략

횡획이 많아서 일부를 생략해도 무방하거나 여러 획 가운데 들어있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지 않는 경우 주로 생략한다. 𠂔(𠂔), 𠂔(𠂔), 𠂔(𠂔) 등이 있다.

③ 點劃(丶)의 생략

𠂔(𠂔), 𠂔(𠂔), 𠂔(𠂔)처럼 다른 필획 조합 안에 들어있으므로 두드러지지 않아서 생략해도 무방한 경우와 𠂔(𠂔)의 雨처럼 점이 너무 많을 때 서사 편이를 위해 일부를 생략한다. 그러나 때에 따라 𠂔(𠂔)처럼 꼭 필요한 경우에도 생략되기도 하여 이체자를 형성하기도 한

6) 『字鏡·目部』: “𠂔, 先定反. 去. 目生醫也. 麻介.” 『說文解字·目部』: “𠂔, 目病生翳也. 从目, 生聲.”

7) 『字鏡·目部』: “𠂔, 且勞反. 藉布.” 『說文解字·曰部』: “𠂔, 獄之兩曹也. 在廷東, 从棘. 治事者, 从曰.”

8) 『異體字字典』 <http://dict.variants.moe.edu.tw> (2019.05.07)

다.

④ 撇劃(丿)의 생략

𧢲(𧢲)처럼 별획이 너무 많아 일부를 생략하기도 하고, 瞞(瞞), 顚(顚)와 眸(眸), 傀(傀)처럼 짧은 별획은 너무 많지 않은데 생략되기도 한다.

⑤ 捺劃(㇏)의 생략

날획은 한 자형에서 사용되는 횟수가 많지 않고 주로 하나 자형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쓰이기 때문에 직접 생략되지 않는다. 보통 瘰(瘰)에서처럼 점획(丶)으로 변모하는 과도 단계를 거쳐 나중에는 결국 생략되어 倅(倅)이나 腴(腴)와 같은 이체자를 형성한다.

⑥ 필획의 공유

서로 인접한 필획이 형태가 동일하거나 유사할 때 曼(曼), 娉(娉), 嫵(嫵)의 이체자인 嫵(嫵)처럼 일부를 생략하고 남은 필획을 서로 공유하여 이체자를 형성하는 경우이다.

⑦ 連筆

서로 인접해 있는 필획이나 構件을 연결해 서사의 편의성을 높이고 자형을 간략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鎬(鎬)처럼 획끼리 연결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나, 歸(歸)·𨾏(𨾏)·𨾏(𨾏)처럼 構件을 생략하는 과정을 더 거치기도 한다. 성부 歸는 원래 의부 止와 婦의 생략된 형태 婦, 성부 自로 구성되어, 여인의 귀속, 즉 출가(女嫁)를 뜻하는 글자였는데,⁹⁾ 止의 상단부를 생략하고 自와 붙여 씌으로써 원 자형의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서사의 편의성은 높은 자형으로 변모하였고, 歸를 성부로 하는 글자의 구성에 쓰여 다양한 省體 이체자를 형성하였다.

(2) 構件 생략 및 간략화

構件은 필획의 결합으로 형성된 것으로, 고유의 表意, 表音, 區別 기능을 가진 글자 구성요소이다.¹⁰⁾ 이 構件들 역시 생략되거나 형태가 간략하게 변하면서 수많은 이체자를 양산한다.

① 동일한 構件 생략

동일한 構件이 여럿 있을 때 일부를 생략하여 자형을 간략하게 만든다. 龠처럼 한 글자 안에 동일한 構件이 여러 번 나타날 때, 그 構件 일부를 생략하여 龠(龠)·鑰(鑰)·藹(藹)과 같은 이체자를 형성하였다.

②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構件 생략

9) 『說文解字·止部』: “歸, 女嫁也. 从止, 从婦省, 自聲. 𨾏, 籀文省.”

10) 毛遠明, 『漢魏六朝碑刻異體字研究』, 商務印書館, 2012, p.236.

위의 경우처럼 여러 번 나타나는 같은 構件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構件을 생략하여 이체자를 형성하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羸(羸)이다. 이 글자는 의부 羊과 성부 羸자로 구성되었는데, 羸자의 口 構件이 羸(『干祿字書』)¹¹⁾에서처럼 변이되었다가 亡 構件이 생략되어 羸(羸)와 같은 자형을 형성하였다.¹²⁾

③ 構件의 형태를 간략하게 줄임

構件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필획을 더 간략한 형태로 줄여 이체자를 형성하는 예이다. 豎提(レ)와 撇(丿), 豎劃(丨) 등으로 구성된 성부 𦍋 하단부의 복잡한 형태를 𦍋로 간략하게 줄여 𦍋의 이체자 𦍋을 형성하였다.

(3) 의부 생략 및 간략화

한자는 合體字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합체자는 회의나 형성처럼 의부와 의부, 의부와 성부가 합쳐져 이루어진 글자를 말하는데, 형태가 복잡할 때 그 의부나 성부를 일부 혹은 전부를 생략하거나 간략하게 줄여 새로운 이체자를 형성한다. 본 소절에서는 먼저 의부의 생략과 간략화로 형성된 이체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① 의부 전체 생략

모든 의부가 어우러져 자의를 표시하는 회의자는 쉽게 의부를 생략할 수 없지만, 의부와 성부로 이루어지고 성부로 표현되는 음가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의미 전달이 되는 형성자의 경우, 서사의 편리를 위해 성부를 생략하기도 한다. 『字鏡·佳部』에 “離瞿, 二同. 子心反. 𦍋(雞).”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에 따르면 𦍋(瞿)은 단순히 𦍋자가 아니라 離(離)의 이체자가 된다. 離에서 의부 佳가 생략되어 𦍋만 남았으며, 남은 𦍋에서 𦍋의 관통되어 돌출된 획이 정돈되고 橫折이 횡획으로 간략화되어 𦍋이라는 이체자 자형을 형성하였다. 𦍋의 자형은 좀 더 복잡한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다. 𦍋은 원래 𦍋과 𦍋으로 이루어졌는데, 𦍋은 𦍋→𦍋→𦍋→𦍋으로 변이되고, 𦍋은 𦍋의 構件이 더해져 𦍋로 변이되었다가, 𦍋의 𦍋 구건이 二 형태로 간략화되어 𦍋과 같은 이체자를 형성하였다.

② 의부 構件 국부 생략

의부 전체를 생략하는 경우보다 다소 자주 나타나는 것이 의부를 이루는 일부 構件을 생략하는 것이다. 𦍋은 원래 의부 𦍋와 성부 般으로 구성되었으나 𦍋의 彡 構件이 생략되어 𦍋이라는 새로운 이체자를 형성하였다.¹³⁾ 𦍋 역시 의부 鹿과 성부 𦍋로 구성되었으나 鹿의 比

11) 『異體字字典』: <http://dict.variants.moe.edu.tw> (2019.05.07)

12) 『字鏡·羸部』: “羸羸, 二形. 累垂反. 弱也. 疲也. 瘦也. 又力規反. 累也.” 『字鏡·𦍋部』: “羸, 流音. 須加留.” 『說文解字·羊部』: “羸, 瘦也. 从羊羸聲.”

13) 『字鏡·𦍋部』: “𦍋, 布還反. 髮半兒(白).” 『康熙字典·𦍋字部·𦍋』: “又『廣韻』布還切『集韻』逋還切, 𦍋音

構件이 생략되어 厖라는 이체자를 형성하였다.¹⁴⁾

③ 의부 構件 간략화

鯨은 鱣의 이체자이다.¹⁵⁾ 고문자에서는 構件의 중복이 비교적 자유로워 鱣과 鯨이 같이 쓰였다. 이러한 자형 전통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다가 表形字¹⁶⁾가 형성자와 되는 추세에 부응해 鯢이라는 자형을 형성하였다. 鯢鯢(『重訂直音篇』)¹⁷⁾에서 보듯이 이 鯢의 직접적인 자형 내원은 鯢이다. 鱣에서 중복된 構件 하나를 생략하여 간략화한 후 다시 魚의 構件 灬를 소로 줄여 더 간략한 자형으로 변화되었다.

(4) 성부 생략 및 간략화

이체자 형성에서 성부의 형태가 복잡할 때 그 성부의 일부 혹은 전부를 생략하거나 간략하게 줄여 새로운 이체자를 형성하는데, 본 소절에서는 성부의 생략과 간략화로 형성된 이체자들을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① 성부 전체 생략

성부 전체를 생략하는 예는 그리 많지 않으며, 歸가 대표적인 예이다. 歸의 고문자를 보면 갑골문은 𠂔(後2.33.4)로 自와 婦의 생략된 형태인 帚로 구성되어 있고, 금문을 거쳐 𠂔(雁侯鐘)·𠂔(歸父盤止)처럼 止가 첨가되었으며, 소전 歸와 睡虎秦簡의 𠂔에서 보이듯이 후에 自와 婦의 생략된 형태인 帚, 止로 구성된 자형이 완전히 정립된 것이 보인다. 여기에 『설문』주문 𠂔처럼 성부 自가 완전히 생략된 이체자가 나오는데, 歸는 이러한 자형을 楷定한 것이다.

② 성부 국부 생략 및 간략화

성부 전체를 생략하는 것보다는 성부의 일부분을 생략하거나 형태를 간략하게 변이시키는 모습이 더 일반적이다. 특히 성부의 일부를 생략하는 간략화 방법은 독특한 이체자를 형성하곤 한다. 예를 들면 跲(跲)·梃(梃)·笱(笱)·笱(笱)·犄(犄)·捋(捋) 등이 있는데, 각기 성부 口 構件, 若의 艹 構件, 勞의 火, 曷의 曰, 將의 丷이 생략되어 자형이 간략해졌다. 이러한 형성자들은 자형의 간략화는 이루었지만 다른 글자와 동형자를 이루기도 한다. 梃¹⁸⁾은 의부 木

班. 髮半白. 『柳宗元詩』賈傳辭寧切. 虞童髮未鬢.”

14) 『字鏡·鹿部』: “麇, 同. 羈雄反. 似鹿. 童而大. 旄鬣毛.”

15) 『字鏡·魚部』: “鯢, 思連作踐二反. 好也. 少也. 生也. 吉也. 妙也. 牢也. 善也. 絜也. 仙音. 鯢, 上字.”
鱣과 鯢이 鯢의 본자 이므로 鯢을 鯢이라고 본 『자경』의 분석대로 이 두 글자는 본자와 이체자 관계에 있다.

16) 表形字는 象形이나 會意, 指事 등처럼 음가를 표시하는 부분 없이 오로지 자형만을 통해 해당 글자의 字義를 전달하는 글자들을 말한다.

17) 『異體字字典』: <http://dict.variants.moe.edu.tw> (2019.05.07)

18) 『說文解字·木部』: “梃, 梃也. 从木, 音聲.”

과 소리부 ㅁ로 구성되어 “동자기등(稅)”을 뜻한다. 이 글자의 省體 이체자인 𣎵은 “나무를 꺾는다(折木)”는 뜻을 가진 𣎵¹⁹⁾과 동형자가 된다. 擣의 省體 이체자인 攄 역시 “집어 따다”라는 뜻을 가진 “攄”²⁰⁾과 동형자가 된다. 이처럼 성부의 일부를 생략하여 형성된 이체자들은 자형의 간략화라는 목적은 이루었지만 다른 글자와 동형자를 이루어 글자의 구별성이 약화되는 단점을 보이기도 한다.

다음으로 성부의 자형을 간략하게 고친 예이다. 𣎵(眊)과 𣎵(沔) 등을 들 수 있는데²¹⁾, 𣎵은 성부 𣎵의 𣎵(一)과 橫鉤(즉 ㄱ)에서 入鋒²²⁾하면서 𣎵는 𣎵(一)을 생략했고, 𣎵은 𣎵의 出鋒²³⁾을 鉤(즉 ㄱ의 형태)가 아니라 豎(丨)의 형태로 바뀌 자형의 간략화를 완성했다.

③ 의부 성부 모두 국부 생략 및 간략화

때로는 의부와 성부 모두에서 필획이나 構件이 생략되어 자형 간략화를 이루기도 한다. 籒의 이체자 籒은 의부 𣎵에서 점획을 생략하였고, 성부 𣎵에서 별획을 생략하여 이루어진 자형이다. 𣎵의 이체자 𣎵은 의부 𣎵에서 𣎵 중 짧은 𣎵(一)이 생략되었으며, 𣎵의 𣎵, 構件이 생략되어 이루어졌다.

(6) 초서 자형 해서화

초서는 정자체에 連筆, 省筆, 기호 대체 등의 방식을 통해 자형의 간략화를 도모한 서체이다. 주로 민간에서 사용되던 서체로 주류인 正體 자형의 간략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为”자처럼 초서 자형을 해서화한 이체자가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이체자 형성의 주류는 아니었다. 더욱이 비록 필사본이기는 하지만 자양서를 참조하여 자형의 선별에 유의하였던 『字鏡』에서는 특히 초서 자형에서 나온 이체자를 표제자로 내세우지 않았으므로 더욱 찾기 어렵다. 그러나 석문 속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워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字鏡·疒部』: “癩, 芳蓮反. 枯^ㄱ.”에 나오는 ㄱ(身)이 바로 그러하다. 『康熙字典·疒部』의 “癩”자조에서 “『설문』에서는 ‘반쯤 마름을 뜻한다.’라고 하였고, 『廣韻』에서는 ‘몸이 말랐다’라고 하였으며, 『集韻』에서 ‘공손탁이 癩枯를 고치는 약이 있어 죽은 자를 기사회생하게 하였다’고 한다.”²⁴⁾한 바에 따라 ‘枯^ㄱ’은 ‘枯身’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게다가 이 자형은 『敦煌俗字典』²⁵⁾의 身자 ㄱ과 흡사하여 이 추론을 뒷받침해 준다.

19) 『說文解字·木部』: “𣎵, 折木也. 从木立聲.”

20) 『說文解字·手部』: “攄, 取易也. 从手孚聲.”

21) 『字鏡·目部』: “𣎵, 莫見反. 去. 斜視.”, 『玉篇·目部』: “𣎵, 莫見切. 『說文』云: 目偏合也. 一曰袞視也. 秦語. 俗作𣎵.” 『字鏡·水部』: “𣎵, 緬音. 漢水.” 『玉篇·水部』: “𣎵, 彌善切. 水, 出武都沮縣, 東南入江.” <http://dict.variants.moe.edu.tw> (2019.05.10)

22) 入鋒: 획을 긋기 위해 처음 붓이 들어가는 것을 일컫는 서예 용어이다.

23) 出鋒: 획을 그은 후 붓이 나오는 것을 일컫는 서예 용어이다.

24) 『康熙字典·疒部·癩字』: “『說文』: 半枯也. 『廣韻』: 身枯. 『集韻』: 公孫綽有癩枯之藥以起死者.”

25) 黃征, 『敦煌俗字典』, 上海世紀出版集團, 上海教育出版社, 2005, p.358.

2) 增繁化

한자 자형의 변화에서 간략화의 추세가 상당히 강하다는 것은 이미 주지한 사실이다. 그러나 증번화 역시 간략화에 대한 반동 작용으로, 혹은 착오에 따른 오류로, 때로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빈번하게 일어났다. 증번화가 나타나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필사 과정에서 같은 필획을 반복해서 쓰다가 관성적으로 필획을 하나 더 증획하거나, 다른 자형의 영향으로 증획하여 증번화가 일어나는 경우이다.

두 번째, 자형의 구별성과 식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증번화가 일어나는 경우이다. 과도한 생략과 변이는 다른 자형과의 동화를 불러오기도 하고 원래 자형이 무슨 글자인지 알아볼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게도 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시 필획이나 構件을 증가시켜 자형의 구별성과 식별성을 강화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증번화 이체자가 형성되었다.²⁶⁾

세 번째, 증번화는 한자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려는 사유에 의해서도 일어난다. 한자는 방형 안에 각 필획과 構件을 채우고 채움과 비움의 적절한 배분이 그 아름다움을 좌우한다. 필연적으로 획수가 적은 글자는 방형을 가득 채우기 위해 증획을 하였고, 한 글자 안에서 다른 부분에 비해 한쪽이 비어 보여 여백의 불균형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백의 배분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적당한 필획을 채워 넣으며 새로운 이체자가 탄생하였다.

네 번째, 자형과 실제 형음의 표현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 뚜렷한 목적성을 가지고 증번화 되기도 한다. 한자의 파생과 양적 증가 면에서 합체자의 증가는 큰 효용성을 발휘하였으며 한자 구성의 가장 주요한 방법이 되었다. 특히 형성자는 음의 표시를 동시에 완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시되었는데, 간략화를 추구하는 자형 변천의 규율로 말미암아 이러한 효용성도 점차 약화되곤 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성부나 의부를 더 추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수많은 이체자가 양산되었다.

(1) 필획증가

자형의 증번화는 가장 작은 글자 구성 단위인 필획에서부터 시작하여 여러 다양한 형태의 증체 이체자를 만들어 낸다.

① 수획 증가

『자경』에는 臣의 영향으로 巨에 수획이 더해져 𡗗로 변한 단순한 증획 외에, 자형의 미관을 위해 형성된 이체자도 다수 나타난다. 開의 이체자인 𡗗가 그 예이다. 이 자형의 내원은 𡗗(『古文四聲韻』)²⁷⁾이다. 𡗗는 開로 예정되었고, 開는 开와 一 사이의 여백을 채우기 위해 수획이 증획되어 형성되었다. 𡗗의 이체자인 𡗗 역시 성부 后의 횡획과 口 構件 사이에 여백

26) 毛遠明, 『漢魏六朝碑刻異體字研究』, 商務印書館, 2012. pp.108-109

27) 葉鍵得, 『異體字子錢』, <http://dict.variants.moe.edu.tw> (2019.05.08.)

필획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의를 표시할 수 있는 記詞 기능이 있어 직접 글자 구성에 참여하는 문자성 構件(成字構件)과 독립적으로 글자를 구성하지 못하고 구성요소로서 합체자 속에서 구현되는 비문자성 構件(非成字構件) 등이 증가되어 새로운 이체자를 형성하기도 한다.³¹⁾ 특히 비문자성 構件은 자형과 위치가 상당히 안정적이며, 글자 구성에서 어느 정도의 의미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해당 한자의 표의 기능에 도움을 주거나 암시를 하기도 하고, 여러 한자를 이끌 수 있으므로 부수로 확정되기도 한다.³²⁾ 대표적으로 편방 亅 과 ㄴ 등이 있다.

① 문자성 構件 증가

본자에 문자성 構件이 증가되어 이루어진 이체자는 동일한 構件을 중복하거나 전혀 다른 문자성 構件을 더하기도 한다. 曆은 전자의 예로써, 曆에서 日이 중복되어 이루어진 이체자이다.³³⁾ 후자의 예로는 纓·鵲등을 들 수 있다. 纓는 綏의 이체자³⁴⁾로 抄가 증가 되었고, 鵲는 鵲³⁵⁾의 성부 出에 少라는 構件이 더해졌다.

② 비문자성 構件 증가

비문자성 構件이 더해진 예는 상당히 많은데, 懷(懷)·裒(裒)·梔(梔)·熒(熒)·艦(艦)·珥(珥)·葑(葑)·隼(隼) 등이 있다. 懷(懷)·裒(裒)은 성부 褱와 의부 衣의 변이로 나타난 이체자이다. 보통 부수 衣는 構件이 해체되어 다른 구성요소가 중간에 삽입되었다가 다시 획획(一)이 더해지거나 ㄴ가 증획되어 변이를 일으킨다. 梔는 梔의 이체자로, 성부 局(자형 상 직접적인 자형 내원은 局로 보임)의 변이에 의해 현재의 자형이 이루어졌다. 局은 尺 構件의 해체와 점획의 증가(局(魏樂安王元緒墓誌))→점획의 획획으로의 변이(局(魏崔懃墓誌))→인접한 필획의 연결(局(魏杜文雅造像))→관통된 획의 단절(局(隋息州梁安郡守侯肇墓誌))→동화(局(唐王進墓誌)) 등 여러 단계의 변이를 거쳤고³⁶⁾, 梔를 이루는 구성요소로 활용되어 이러한 이체자형을 형성하였다. 熒는 熒에 冫 構件이 증획되었고, 艦은 艦에서 여백을 채우기 위해 획획과 점이 차례로 증체된 형태이고, 珥은 珥에서 厂 構件이 증가되어 나타난 이체자이다. 葑은 叕 형태

31) 毛遠明, 『漢魏六朝碑刻異體字研究』, 商務印書館, 2012, pp.238-239.

32) 毛遠明, 『漢魏六朝碑刻異體字研究』, 商務印書館, 2012, p.240.

33) 『字鏡·厂部』: “曆曆歷歷, 四形同. 歷音. 數也. 數術也. 計也. 術道也.”

34) 『자경』에서는 먼저 綏와 綏를 이체자로 인식하였고, 다시 綏와 纓 역시 이체자로 풀이하고 있다. 『字鏡·糸部』: “綏綏, 二同. 私焦先追二反. 安也. 置也. 冠緒也. 止也.” “綏綏, 二同. 而唯乳住二反. 繼也. 繫也. 又冠纓也.” 纓과 綏는 증체 이체자와 본자의 관계이며, 綏과 綏는 委와 妥의 자형이 綏(『龍龕手鏡』)라는 과도자형을 통해 보듯이 서로 비슷하여 자주 혼동되었고 이에 따라 원래 “편안하다”를 뜻하였던 綏가 갇힌이라는 綏의 자의를 공유하게 되었다. 실제로 『집운』에 “綏綏, 說文系冠纓也. 一曰垂也. 一曰注髮於干首. 或作綏.”라고 하였고, 『佩觿』에서 “綏綏, 上人佳翻. 纓也, 下先佳翻. 安也.”라며 두 글자 음의 차이점을 설명한 것도 이 두 글자가 서로 통용되고 있었음을 반증한다.

35) 『字鏡·鳥部』: “鵲鵲鵲, 三形, 鵲字.” 鵲자와 같이 제시된 한자와 석문의 내용을 통해 이 글자가 鵲의 이체자임을 알 수 있다. 필자의 추측으로는 涉과 陟 등에 들어간 步의 영향으로 少가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36) 『異體字字典』, <http://variants.moe.edu.tw> (2019.05.10)

의 構件이 圭의 형태로 변하는 점에서 역방향 유추가 일어나 불필요한 八 構件이 葑에 부여된 것이다. 雋(隼)은 隼에서 一 構件이 증체되고, 이것이 𠂔로 변이하여 형성된 이체자이다.

(3) 의부 추가

의부가 추가되는 예는 크게 다음 몇 가지 경우가 있다. 첫 번째는 상형·지사·회의 같은 表形字에 의부를 더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미 의부와 성부의 결합으로 의미와 음가를 모두 표현하고 있는 형성자에 또다시 의부를 더하는 것이다. 형태면에서는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실질적인 효용 면에서는 불필요하게 증체된 경우와 한자의 자형 변이에 부응해 효과적으로 형음의 전달에 기여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의부를 추가해 새로운 이체자를 만들어 내는 일은 한자 문화나 이체자·속자의 양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³⁷⁾ 본 소절에서는 형태와 실질적 효용 두 측면에서 의부 추가로 형성된 이체자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① 불필요한 의부 추가

a. 표형자에 불필요한 의부 추가

예변과 해서로의 자형 변화와 그 뒤로도 계속된 자형의 변이는 이러한 한자의 표의 구상(構想)을 불분명하게 만들어 어떤 글자는 자형만 보아서는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없게 되어 버렸다. 특히 표형자의 특성 상 해당 한자의 음가가 드러나지 않는 점은 표형자가 형성자에 의해 대체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원래의 글자 전체를 성부로 삼은 새로운 이체자가 나타나게 되었다.³⁸⁾ 이 경우는 실질적으로 형음의 전달과 자형의 구별성에 기여한 셈이지만, 여전히 상형성이 남아 있는 상형자나 기존 의부의 조합만으로도 그 뜻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회의자에도 굳이 의부를 추가하여 불필요한 이체자를 만들어내는 바람에 한자 자형의 범람을 야기하기도 한다.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燕은 𪇐(懷367)처럼 제비의 모습을 본뜬 상형자이다. 예변 이후 𪇐(縱橫家書251)³⁹⁾으로 변이되어 자형의 회화성이 다소 약해지긴 했어도 여전히 상형 문자의 특징이 남아 있다. 그러나 여기에 의부 鳥를 붙여 새로운 형성자 鷗⁴⁰⁾이 만들어졌다.

果⁴¹⁾는 의미부 木에 나무에 열매가 달린 모습을 상형한 構件이 결합한 자형으로 나무 열매를 뜻하다가 모든 식물의 열매를 일컫게 되었다. 금문 자형 𣎵(果簠)부터 簡帛 문자 𣎵 𣎵(睡虎秦簡), 古璽文 𣎵, 해서 “果”에 이르기까지 거의 자형의 변화가 없이 충분히 그 의미를 표현하고 있으므로 의부를 더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果 전체를 성부로 하고 식물을 뜻하는 의부 艸가 더해져 菓라는 이체자가 만들어졌다.

37) 張涌泉, 『漢語俗字研究』, 商務印書館, 2010, pp.44-48.

38) 毛遠明, 『漢魏六朝碑刻異體字研究』, 商務印書館, 2012, p.120.





39) 徐仲舒 編, 『漢語大字典』, 四川辭書出版社·湖南辭書出版社, 1993, p.2239.

40) 『字鏡·鳥部』: “鷗, 鳥見反. 去. 𪇐. 六字同.”

41) 『說文解字·木部』: “菓, 木實也. 从木, 象果形在木之上.”

b. 형성자에 불필요한 의부를 부연하여 이중 의부의 구조를 만드는 경우

형성자는 의부와 성부의 조합으로 한자의 뜻과 음을 동시에 전달하는 가장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조자법으로, 한자를 구성하는 가장 주요한 방식이다. 그러나 형성 역시 한자 형음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이체자를 형성해야 할 필요가 생기기도 하였다.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방법이 기존의 글자에 다시 의부를 더하는 방법이며, 사실 일정한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의부를 덧붙이지 않아도 되는 글자에도 굳이 의부를 더 추가하여 이중 의부 구조를 만들면서 수많은 이체자를 양산한 부작용도 부정할 수 없다.

園⁴²⁾은 古陶文  과 睡虎地秦簡  에서 보듯이 의부 口과 성부 袁으로 이루어진 형성자로 “과수나 화초를 심는 동산(所以樹果也)”을 뜻하였는데, 다시 艸를 덧붙여 의부가 중첩을 이루는 藺이라는 새로운 형성자를 만들어내었다. 恭⁴³⁾은 龠과 같이 『설문』에 실려 있는데⁴⁴⁾, 恭은 “肅也”고 龠은 “慤也”로 서로 뜻이 비슷하고 성부로 쓰인 共과 龠의 음가가 비슷한 것으로 보아 실상은 龠에서 共이 파생된 것으로 보인다. 즉 자형 면에서 “慤也” 같은 심리와 관련된성을 찾기 힘들므로 의부 心을 더하고 음가가 같은 共을 성부로 하는 새로운 자형을 만들어 낸 것이다. 恭은 금문까지는  (邾公華鐘)로 쓰며, 龍과 井의 구성요소를 유지하였으나 점차 복잡한 성부 龍을 간략한 글자로 바꾸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백서에서는  (長沙帛書)처럼 恭으로 간략화되었다. 이로써 “慤也”라는 의미를 표현하면서 음가까지 보존한 형성자가 마련되어 널리 쓰였지만, 후에 여기에 다시 心을 더하여 憇이라는 이체자를 형성하였다.

② 의부의 추가로 의미를 분명히 표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예변과 해서화, 해서화 이후로도 끊임없이 일어났던 자형의 변이 때문에 한자의 표의 構想이 불분명하게 되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표형자에 의부를 더하는 방법이 고안되었고, 이 때문에 수많은 이체자가 양산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반드시 의부를 더 해야 할 때도 있었다.


a. 인신의 등 새로운 자의를 반영하기 위해 의부를 더함

그 첫 번째 경우가 바로 본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인신의가 생겨 기존의 자형으로는 충분하지 못할 때이다. 인신의는 본의에서 파생되었으므로 본의와 글자를 공유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의와 인신의가 뒤섞이는 것을 피하고자, 따로 자형을 만들어내기도 한다.⁴⁵⁾

赭는 赭에서 의부 土가 증설되어 형성되었다. 赭는 의부 赤과 성부 者로 이루어진 형성자로 『管子·地數』의 “위에 붉은 흙이 있는 곳, 그 아래에 철이 있다(上有赭者, 下有鐵.)”에서

42) 『說文解字·口部』: “, 所以樹果也. 从口袁聲.”

43) 『說文解字·心部』: “, 肅也. 从心共聲.”

44) 『說文解字·収部』: “, 慤也. 从升龍聲.”

45) 蘇培成, 「與假借義引申義相關的漢字問題」, 『語文建設』, 2018, p.72.

말했다시피, “붉은 흙”을 뜻했다. 후에 여기에서 붉은색이라는 의미가 인신되었고⁴⁶⁾, 이후 그 뜻으로 더 널리 쓰였다. 따라서 의부 土가 증설된 이체자를 만들어 본의를 표시하였다.

爪⁴⁷⁾의 고문자를 보면 갑골문은 𠂔(乙3471)로 금문은 𠂔(師克盥)로 쓰고 있는데, 모두 손톱을 상형하고 있으며 본의는 “조수의 손발톱”을 뜻하다가 나중에는 사람의 손발톱도 일컫게 되었다. 손톱의 기능에서 “움켜잡다”와 “긁다” 등의 동작으로 인신되었으며 이러한 동작을 표시하기 위해 의부 手를 더해 抓라는 이체자가 형성되었다.⁴⁸⁾⁴⁹⁾

親은 금문 𡇗(克鐘)과 소전의 자형 親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의부 見과 성부 亲으로 구성되어 “칼로 새기는 듯”이 강렬한 “지극함(至也)”을 뜻한다.⁵⁰⁾ 단옥재의 『설문해자주』에서 “「지부」에서 말하기를 到는 도달함(至)이다. 땅에 도달함을 지(至)라고 하고 감정의 간절함을 지(至)라고 한다.(「至部」曰:「到者, 至也. 到其地曰至, 情意懇到曰至.)」라고 풀이하고 있다. 후에 이 “지극함”이 부모의 의미로 인신되었고 이를 표시하기 위해 의부 子를 증설하여 親이라는 이체자를 형성하였다.⁵¹⁾

b. 형성자의 의부의 기능이 약화되어 다시 의부 추가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형성에서조차 자형의 변이로 말미암아 의부가 잘 드러나지 않게 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증설되었던 경우이다. 綌⁵²⁾의 본자는 𦰩로 의부 水과 성부 𦰩로 이루어진 형성자이며 “마”를 뜻한다. 𦰩은 “삼 줄기의 껍질을 벗겨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⁵³⁾ 성부 𦰩과의 결합을 통해 비로소 “대마의 껍질을 벗겨 낸 마”라는 의미를 표현해내었다.⁵⁴⁾ 그러나 점차 이 “𦰩(水)”의 곡필이 직필로 바뀌고 단절되었던 획들이 연결되면서 “木”과 유사하게 변하여 나무와 관련된 글자로 보이게 되자 “대마로 만든 섬유와 베”라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의부 糸를 더하여 “綌”라는 이체자를 형성하게 되었다.

(4) 성부 추가

본자에 성부가 추가되는 경우는 성부의 자형 변화가 너무 심하여 두드러지지 못하거나, 성부의 음가를 알기 어려워 해당 음가를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다른 성부를 붙여 음가를 회복하려 할 때 나타난다.

46) 段玉裁, 『說文解字·赤部』: “上有赭者, 下有鐵. 是赭之本義爲赤土也. 引申爲凡赤. 从赤. 者聲.”

47) 『說文解字·爪部』: “𠂔也. 覆手曰爪. 象形. 凡爪之屬皆从爪.”

48) 柳宗元『種樹郭橐駝傳』: “甚者爪其膚以驗其生枯, 搖其本以觀其疏密, 而木之性日以離矣.” 後爲引申義造專用字“抓”. 杜牧『讀韓杜集』: “杜詩韓集愁來讀, 似倩麻姑癢處抓.” 『漢語大字典』p.2030에서 재인용.

49) 『字鏡·才部』: “抓, 側交反. 搯也. 爪刺也. 搔也. 又側考反. 櫛也. 刮也. 豆女乎毛天加久, 又豆牟.”

50) 『說文解字·見部』: “親, 至也. 从見亲聲.”

51) 『字鏡·イ部』: “親, 楚親反. 去. 至也. 近也. 襄(裏)也.”

52) 『字鏡·木部』: “𦰩, 胥里反. 麻. 加良牟志也. 『字鏡·糸部』: “綌, 死音. 麻也.”

53) 『說文解字·木部』: “𦰩, 分泉莖皮也. 从中, 八象泉之皮莖也. 凡木之屬皆从木.”

54) 『說文解字·木部』: “綌, 麻也. 从木台聲. 胥里切. 繹, 籀文泉, 从𦰩从辵.”

① 자형의 변화로 원래의 성부가 음가를 잘 나타내지 못할 때

한자 자형의 변화를 촉진하는 가장 큰 동력은 간략화를 통한 변이이다. 이러한 변이는 원래 자형에서 단순히 필획이나 構件 일부를 생략하는 수준을 넘어서 構件의 해체나 와변을 통해 원래 자형과의 괴리를 더 크게 벌리기도 한다. 그 결과 성부의 자형이 원래의 모습을 잃어 그 음가를 알아낼 수 없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것이 의부의 증설을 통해 표의 기능의 약화를 극복하려 했듯이 음가를 더 잘 나타내는 다른 성부를 더 하는 것이었고,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손쉬운 방법이었을 것이다.

𩺰(𩺰)는 鰲에서 성부 盧가 증설되어 형성된 이체자이다.⁵⁵⁾ 鰲는 원래 의부 魚와 성부 差의 생략형으로 구성된 글자이다.⁵⁶⁾ 그러나 **𩺰**에서는 差를 이루는 構件 중 工이 생략되었고, 남아있는 構件도 羊과 厶의 형태로 변이되어 그 음가를 알 수 없게 되어 버렸다. 이를 보완하고자 差와 음가가 비슷한 盧를 다시 성부로 추가하였다.⁵⁷⁾

𡵓(𡵓) 역시 坳에 성부 凹가 증설되어 형성된 이체자이다. 본자인 坳는 의부 土와 성부 幼로 구성된 형성자이다.⁵⁸⁾ 성부 幼는 𡵓(『字彙補』) 처럼 좌우 구조에서 상하 구조로 바뀌곤 한다. 『자경』에 수록된 **𡵓**은 么의 하단부와 力 構件이 필획을 공유하는 형태로 변하는 등 변이의 정도가 좀 더 강하지만, “땅이 평평하지 않은 모양(地不平之兒)”이라는 의미항이 『설문』의 “땅이 평평하지 않음(地不平也)”과 통하고, 인접하고 형태가 유사한 필획을 공유시키는 자형 변이 규율이 분명 있으므로, 坳의 이체자임이 분명하다.⁵⁹⁾ 이렇듯 幼의 자형 변이로 인해 원래의 음가를 알아보기 힘들어졌으므로 아예 坳의 음가를 더욱 잘 나타내는 凹⁶⁰⁾로 성부를 교체한 𡵓과 같은 이체자가 형성되기도 하였다.⁶¹⁾ 『자경』에 수록된 **𡵓** 자형은 坳에서 𡵓로 변해가는 과도자형으로 할 수 있다.

② 음가를 알기 어려울 때

일부 형성자의 성부는 실제 자음과 차이가 있거나 음가를 알기 어려워 좀 더 직접적으로 음가를 드러내는 성부를 증설하여 이체자를 형성하기도 한다. 이때 본래의 자형에 새로이 의부를 증설하기만 하는 경우와 성부의 일부를 생략하고 다른 성부로 그 자리를 채워 넣는 경우가 있다. 먼저 본자에 의부만 증설한 예를 보면 아래와 같다.

𩺰⁶²⁾는 齡에 의부 司가 증설되어 형성된 이체자이다. 이 글자의 본자는 齡⁶³⁾로 의부 齒와

55) 『字鏡·魚部』: “鰲, 庄蝦反. 藏魚也. 𩺰也. 𩺰, 上字.”

56) 『說文解字·魚部』: “鰲, 藏魚也. 南方謂之𩺰, 北方謂之鰲. 从魚, 差省聲.”

57) 『廣韻』에 따르면 差는 楚宜切이고 初母, 支B開韻, 平聲이고, 盧는 昨何切, 從母, 歌韻, 平聲이므로 음가가 서로 비슷하다. 『漢典』音韻方言 참조. <http://www.zdic.net> (2019.05.09)

58) 『說文解字·土部』: “坳, 地不平也. 从土幼聲.”

59) 『字鏡·木部』: “𡵓, 鳥交反. 平夷也. 地不平之兒.”

60) 『集韻』에 따르면 凹는 於交切로도 읽히고, 坳는 於交切, 影母, 肴韻, 平聲字이므로 음가가 비슷하다.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https://ctext.org>와 『漢典』音韻方言 참조. <http://www.zdic.net> (2019.05.09)

61) 徐仲舒 編, 『漢語大字典』, 四川辭書出版社·湖南辭書出版社, 1993. p.432.

62) 『字鏡·木部』: “𩺰, 刃之反. 食己出入嚙, 牛乃余介加三. 齡, 二, 上字.”

63) 『說文解字·齒部』: “𩺰, 吐而嚙也. 从齒台聲. 『爾雅』曰: “牛曰齡.”

성부 ㅅ로 구성되었다. 齡는 “丑之切”로 읽히고, 徹母와 之韻을 따르며 平聲이다.⁶⁴⁾ 성부 ㅅ는 원래 의부 ㅅ와 성부 ㅅ로 이루어졌으며, “與之切”로 읽혔으나 『광운』에 기재된 것처럼 “胎”음으로 읽히기도 하였다.⁶⁵⁾ 이처럼 성부의 음가에 변화가 생기자 원래의 음가를 드러내기 위해 좀 더 齡의 음가에 가까운 ㅅ를 더하였다.⁶⁶⁾

『자경』의 이체자 중에는 성부의 일부를 생략하여 성부를 더하는 이체 유형이 있다. 이러한 이체 유형은 음가를 알아보기 힘든 기존의 성부를 대신해 직접 해당 음가를 드러낼 수 있는 다른 성부를 증설하기는 하지만 본래의 성부 중 일부를 생략하므로, 전체적인 자형은 본래의 자형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즉각적으로 본래 글자와의 연계성을 인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이체 유형은 현재까지 비각 이체자나 다른 속자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자경』에서는 같은 맥락의 변이 유형이 자주 나타난다. 따라서 단순히 우연히 출현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규칙성을 가진 이체 유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필자는 이를 일본 특유의 이체자 형성 원칙이 아닌가로 조심스럽게 추측해보지만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겠다.

儻은 儻의 이체자이다.⁶⁷⁾ 儻은 또 儻에서 의부 ㅅ 이 덧붙여 형성된 이체자인데, 원래는 의부 ㅅ과 성부 ㅅ의 생략된 형태로 이루어져 “새가 빠르게 날아 돌아옴(回疾)을” 뜻하였다.⁶⁸⁾ 후에 “가족이 없는 사람”의 뜻으로 인신되었으며, ㅅ 을 붙여 그 의미를 표현하는 이체자를 만들었다. 성부 ㅅ은 ㄱ·ㄷ·ㄹ 등으로 변이되었지만, 본자를 포함해 이러한 자형들은 그 자체로는 음가를 알기 힘들다. 이에 성부의 일부분을 생략하고 그 자리에 ㅅ과 음가가 비슷한 성부 ㅅ을 더하여 儻과 같은 이체자를 형성하였다.⁶⁹⁾

3. 결론

본 논문은 『신찬자경』의 13가지 이체자 유형, 즉 고문자의 이체자화, 조자 원리의 변화, 簡略化, 增繁化, 交替, 異化, 同化, 類化, 記號化, 訛混, 同音借用, 構件轉位, 合文 중 간략화와 증번화에 해당하는 이체자의 유형을 정리하고 그 이체자의 형성 원리를 분석하였다. 간략화는 한자의 자형을 간략하게 하여 이체자를 형성하는 원리이고, 증번화는 그 반대 개념으로 본디 글자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다. 간략화와 증번화는 이체자 형성의 본원적 형성원인으로

64) 『廣韻』에 따르면 齡는 徹母 之韻 平聲 癡小韻 丑之切 三等 開口로 읽힌다. 『漢典』音韻方言 참조. <http://www.zdic.net> (2019.06.12)

65) 『廣韻·上平聲·之·飴』: “台, 說也. 从口目聲.” 『廣韻·上平聲·之·飴』: “台, 我也, 又姓出姓苑. 又音胎.”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https://ctext.org> (2019.05.10)

66) ㅅ는 與之切, 以母, 之韻, 平聲이고, ㅅ는 息茲切, 心母, 之韻, 平聲으로 운이 같으므로 ㅅ로 음가를 대신 나타낼 수 있다. 『漢典』音韻方言 참조. <http://www.zdic.net> (2019.05.09)

67) 『字鏡·亼部』: “儻, 巨營反. 但一人. 階也. 人之品也. 單己. 獨單也. 比止利, 又豆礼豆礼. 儻字同, 在上.”

68) 『說文解字·齒部』: “𪔐, 回疾也. 从𪔐營省聲.”

69) 『廣韻』에 따르면 ㄱ은 渠營切, 羣母, 清韻, 平聲이고, ㅅ은 舉卿切, 見母, 庚韻, 平聲으로 음가가 비슷하므로, ㅅ으로 음가를 대신 나타낼 수 있다. 『漢典』音韻方言 참조. <http://www.zdic.net> (2019.05.09)

필획과 構件, 더 나아가 편방(의부와 성부)의 영역에서 이체자의 형성을 주도하였다. 본 논문에서 인용하였던 이체자 자형을 중심으로 그 보편성과 고유성을 고찰하면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⁷⁰⁾

| 대분류 | 소분류 | 세부 분류 | 본자 | 『자경』 이체자 | 보편성 | 고유성 |
|-----|----------------|---------------------|----|-------------|-----|-----|
| 간략화 | 간략화 | 수획의 생략 | 眚 | 眚 | | ○ |
| | | | 幃 | 幃 | ○ | |
| | | 횡획의 생략 | 臄 | 臄 | ○ | |
| | | | 嬾 | 嬾 | | ○ |
| | | | 崖 | 崖 | | ○ |
| | | 점획의 생략 | 颺 | 颺 | ○ | |
| | | | 炙 | 炙 | ○ | |
| | | | 僞 | 僞 | ○ | |
| | | | 霽 | 霽 | ○ | |
| | | | 砒 | 砒 | | ○ |
| | | 별획의 생략 | 貌 | 貌 | ○ | |
| | | | 瞞 | 瞞 | ○ | |
| | | | 顙 | 顙 | ○ | |
| | | | 眸 | 眸 | ○ | |
| | | | 傀 | 傀 | ○ | |
| | | 날획의 생략 | 瘐 | 瘐 | ○ | |
| | | | 俠 | 俠 | ○ | |
| | | | 腴 | 腴 | ○ | |
| | | 필획의 공유 | 曼 | 曼 | ○ | |
| | | | 曉 | 曉 | ○ | |
| | | | 娉 | 娉 | ○ | |
| | | | 孌 | 孌 | | ○ |
| | | 연필 | 鎬 | 鎬 | ○ | |
| | | | 歸 | 歸 | ○ | |
| | | | 巋 | 巋 | ○ | |
| | | | 巋 | 巋 | ○ | |
| | 構件 생략 및 간략화 | 동일한 構件 생략 | 龠 | 龠 | ○ | |
| | | | 鑰 | 鑰 | ○ | |
| | | | 藹 | 藹 | ○ | |
| | |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構件 생략 | 羸 | 羸 | | ○ |
| | | 構件의 형태를 간략하게 줄임 | 爍 | 爍 | ○ | |

70) 고유성은 『異體字字典』, 『漢語大字典』, 『疑難字三考』, 『一切經音義』, 『漢典』, 『敦煌俗字典』, 『漢魏六朝碑刻異體字研究』, 『漢語俗字研究』 등에 수록되지 않은 자형을 고유성이 있는 자형으로 설정하였다.

| | | | | | | |
|-----|----------------|----------------------|---|---|---|---|
| 증번화 | 의부 생략 및 간략화 | 의부 전체 생략 | 𪛗 | 𪛗 | | ○ |
| | | 의부 국부 생략 | 𪛗 | 𪛗 | | ○ |
| | | | 𪛗 | 𪛗 | | ○ |
| | | 의부 構件 간략화 | 𪛗 | 𪛗 | ○ | |
| | 성부 생략 및 간략화 | 성부 전체 생략 | 歸 | 歸 | ○ | |
| | | 성부 국부 생략 및 간략화 | 踣 | 踣 | | ○ |
| | | | 𪛗 | 𪛗 | | ○ |
| | | | 𪛗 | 𪛗 | | ○ |
| | | | 𪛗 | 𪛗 | | ○ |
| | | | 𪛗 | 𪛗 | ○ | |
| | | | 𪛗 | 𪛗 | | ○ |
| | | 의부 성부 모두 국부 생략 및 간략화 | 𪛗 | 𪛗 | ○ | |
| | | | 𪛗 | 𪛗 | ○ | |
| | 초서 자형 해서화 | | 身 | 身 | ○ | |
| 증번화 | 필획증가 | 수획증가 | 炬 | 炬 | ○ | |
| | | | 開 | 開 | | ○ |
| | | | 𪛗 | 𪛗 | | ○ |
| | | 형획증가 | 耆 | 耆 | ○ | |
| | | | 餧 | 餧 | | ○ |
| | | | 看 | 看 | | ○ |
| | | | 𪛗 | 𪛗 | ○ | |
| | | | 𪛗 | 𪛗 | ○ | |
| | | | 𪛗 | 𪛗 | ○ | |
| | | | 𪛗 | 𪛗 | ○ | |
| | | | 𪛗 | 𪛗 | ○ | |
| | | | 𪛗 | 𪛗 | ○ | |
| | | | 𪛗 | 𪛗 | ○ | |
| | | | 𪛗 | 𪛗 | ○ | |
| | | | 𪛗 | 𪛗 | ○ | |
| | | | 𪛗 | 𪛗 | ○ | |
| | | | 𪛗 | 𪛗 | ○ | |
| | | | 𪛗 | 𪛗 | ○ | |
| | | | 𪛗 | 𪛗 | ○ | |
| | | 점획증가 | 𪛗 | 𪛗 | ○ | |
| | | | 𪛗 | 𪛗 | ○ | |
| | | | 𪛗 | 𪛗 | ○ | |
| | | | 勞 | 勞 | ○ | |

| | | | | | | |
|------|--------------------|------------|-----------|---|---|---|
| | | | 蹇 | 蹇 | ○ | |
| | | | 肚 | 肚 | ○ | |
| | | | 淑 | 淑 | | ○ |
| | | | 舂 | 舂 | ○ | |
| | | | 鮑 | 鮑 | | ○ |
| | | | 燐 | 燐 | ○ | |
| | | | 縹 | 縹 | ○ | |
| | | | 粦 | 粦 | ○ | |
| | | | 聊 | 聊 | | ○ |
| | | | 佗 | 佗 | ○ | |
| | | | 曆 | 曆 | ○ | |
| | | | 伎 | 伎 | ○ | |
| | | | 跽 | 跽 | | ○ |
| | | | 戾 | 戾 | | ○ |
| | | | 絜 | 絜 | ○ | |
| | | | 鎡 | 鎡 | ○ | |
| | | 芾 | 芾 | | ○ | |
| | | 별획증가 | 那 | 那 | ○ | |
| | | | 仇 | 仇 | ○ | |
| | | | 燁 | 燁 | ○ | |
| | | | 混 | 混 | | ○ |
| | | | 櫟 | 櫟 | ○ | |
| | | | 鎰 | 鎰 | ○ | |
| | | | 紉 | 紉 | ○ | |
| | 構件증가 | | 문자성 構件 증가 | 曆 | 曆 | |
| | | 緩 | | 緩 | | ○ |
| | | 鷗 | | 鷗 | | ○ |
| | | 비문자성 構件 증가 | 儗 | 儗 | ○ | |
| | | | 裒 | 裒 | ○ | |
| | | | 梏 | 梏 | ○ | |
| | | | 媚 | 媚 | | ○ |
| | | | 艦 | 艦 | | ○ |
| 珥 | | | 珥 | ○ | | |
| 葑 | | | 葑 | ○ | | |
| 售 | 售 | ○ | | | | |
| 의부추가 | 표형자에 불필요한 의부 추가 | 鷓 | 鷓 | ○ | | |
| | | 菓 | 菓 | ○ | | |
| | 형성자에 불필요한 의부를 부여하여 | 園 | 園 | ○ | | |

| | | | | | | |
|--|------|----------------------------------|---|---|---|---|
| | | 의중 의부 구조를 만드는 경우 | 恭 | 悇 | | ○ |
| | | 인신의 등 새로운 자의를 반영하기 위해 의부를 더함 | 赭 | 瑩 | | ○ |
| | | | 爪 | 抓 | ○ | |
| | | | 親 | 覲 | ○ | |
| | | 형성자의 의부의 기능이 약화되어 다시 의부 추가 | 臬 | 線 | ○ | |
| | 성부추가 | 자형의 변화로 원래의 성부가 음가를 잘 나타내지 못할 때, | 薰 | 𩇛 | | ○ |
| | | | 坳 | 𩇛 | | ○ |
| | | 음가를 알기 어려울 때 | 齡 | 齡 | | ○ |
| | | | 僕 | 僕 | | ○ |

일반적인 이체자의 연구 방법론을 토대로 설정한 이체자 분류기준은 『자경』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고,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세부 유형의 이체자까지 충분히 귀납할 수 있었다. 그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 이체자는 일반적인 이체자의 자형과 동일한 보편성이 현저하게 나타난다. 반면 고유성을 띤 이체자들은 간략화에서는 필획이 생략된 ㄱ·倝·倝·倝·倝, 構件이 생략된 𠂇, 의부가 전체적으로 혹은 일부 생략된 𠂇·厶·𠂇, 성부의 일부가 생략되거나 간략화된 𠂇·𠂇·𠂇·𠂇 등이 있는데, 이러한 자형은 보편적인 이체자 자형에서 변이가 멈추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 독특한 이체자를 형성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간단한 필획의 생략은 다른 글자와의 필사 시 실수로 인한 자형 오류일 수도 있지만, 構件을 생략하거나 의부나 성부의 전체 혹은 일부를 생략하는 것은 필사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의식적으로 자형을 변화시킨 것이다. 특히 성부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간략화한 이체자는 일반적인 이체자에서는 잘 찾아보기 힘든 예로 일반적인 이체자의 형성 규율보다 더욱 파격적이고 과감하다.

『자경』의 이체자는 증변화 이체자에서 독특한 자형이 다소 나온다. 필획을 증가시켜 형성한 開·𪔐·𪔑·看·傘·傘·縱·縵·淑·鯨·𪔒·𪔓·戾·𪔔·混이나 構件을 덧붙여 만든 曆·縵·鵠·燭·艦, 원래의 자형에 의부를 덧붙여 재탄생한 𪔕·𪔖, 분명하게 음가를 드러내기 위해 성부를 추가하여 형성한 𪔗·𪔘·𪔙·𪔚 같은 이체자를 보면 일반적인 이체자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파격성과 실용성이 엿보인다. 관성적으로 필획을 하나 더 굵거나 반복한 것 같은 이체자는 혹시 자형 오류로 인한 것일 수 있지만, 構件의 증가나 의부나 성부의 추가는 분명한 의도와 원칙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고유성을 가지고 나름의 자형 변이 규칙을 가진 이체자는 그 가치가 상당히 높다. 이처럼 『자경』의 이체자는 중국의 한자 자형의 틀을 벗어나 다른 한자문화권 국가에서 사용된 한자를 모두 망라하여 전체 한자의 자형 풀을 풍부하게 만들어줄 중요한 자원이 된다. 그러므로 『자경』 이체자의 연구는 단순히 일본 고사서의 연구가 아니라 한자 자형 연구의 경계를 확대하고 아직 제대로 考釋되지 못한 한자 자형을 발굴하고 자형 풀을 확충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京都大學文學部 國語學國文學 研究室, 天治本『新撰字鏡』(增訂本), 臨川書店, 平成11年.
- 金玲敬, 「『新撰字鏡』小考」, 『中國語文學論集』, 74號, 2012.
- _____, 「『新撰字鏡』이체자 유형 연구 — 火部와 灬部를 중심으로」, 『中國文學研究』, 제48집, 2012.
- _____, 「『新撰字鏡』註釋 體例 研究 — 漢字 字形屬性情報를 中心으로」, 『中國學』, 45輯, 2013.
- 毛遠明, 『漢魏六朝碑刻異體字研究』, 商務印書館, 2012.
- 徐仲舒 編, 『漢語大字典』, 四川辭書出版社 湖南辭書出版社, 1993.
- 蘇培成, 「與假借義引申義相關的漢字問題」, 『語文建設』, 2018.
- 楊寶忠, 『疑難字三考』, 中華書局, 2018.
- 異體字字典, <http://dict.variants.moe.edu.tw>
- 張涌泉, 『漢語俗字研究』, 商務印書館, 2010.
-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https://ctext.org>
- 韓小荊, 『『可洪音義』研究』, 巴蜀書社, 2009.
- 『漢典』 音韻方言, <http://www.zdic.net>
- 黃 征, 『敦煌俗字典』, 上海世紀出版集團, 上海教育出版社, 2005.

【논문초록】

| | | | | |
|--|-------|--|-------|---------------|
| 키워드 Key Words | 중문 | 新撰字鏡, 異體字, 異體字 類型, 俗字, 簡略化, 增繁化 | | |
| | 영문 | Shinsenjukyo, Variant Character, Types of Variants, Folk Chinese Character, Simplification, Multiplication | | |
| <div>Type Classification of Variant characters in <i>Shinsenjukyo</i> : Centered on Simplification and Multiplication</div> <div>Kim, Lyoung-Kyoung</div> <p><i>Shinsenjukyo</i> is an early Japanese dictionary written by Shochu on the basis of Chinese wordbooks such as <i>Yiqiejingyinyi</i>, <i>Yupian</i>, <i>Qieyun</i>, <i>Zhengmingyaolu Ganluzishu</i> during the shotai period of heianperiod in Japan. And there're a large number of variants and folk characters, which are of considerable value in the study of typography. Simplification is a way to form variant characters by simplifying the font of Chinese characters, while multiplication is the opposite way to form variant characters by multiplying the font of Chinese characters. They are the fundamental causes of formation of variant characters, including the range of strokes and components, and even the side of a Chinese character which promote the formation of variant characters, such as signifiers and phonetic symbols. Most of the variants of <i>Shinsenjukyo</i> have the same causes as those of common variants, so it can be determined that the variants of <i>Shinsenjukyo</i> have the universality that all variants have. However, there is no lack of inherent variant characters. Some unique variant characters further mutate on the basis of ordinary variant characters, forming unique font not easily found in Chinese character books and inscription. Only omitting or adding simple strokes may be the result of a momentary mistake, while omitting or adding components and sides of a Chinese character must be a deliberate change of a font. That is , the font is intentionally multiplied or simplified to improve the convenience of writing. Especially, that some phonetic symbols of variants are boldly simplified is beyond the range of variance of common variants, which shows the distinguishing featrue of variants in Japanese character books. Thus, the variants in <i>Shinsenjukyo</i> make it possible for scholars who study Chinese character fonts to break through the restrictions of China and to collect the Chinese characters used in other Chinese character cultural circles, becoming one of the important resources in expanding the pool of Chinese character fonts.</p> | | | | |
| 저 자 인적사항 | 성 명 | 김영경 / 金玲敬 / Kim, Lyoung-Kyoung | | |
| | 소 속 | 江西师范高等专科学校 | | |
| | Em@il | jadeling72@163.com | | |
| 논 문 작성일시 | 투 고 일 | 2019년 05월 11일 | 심 사 일 | 2019년 05월 23일 |
| | 수 정 일 | 2019년 06월 15일 | 게재확정일 | 2019년 06월 18일 |